

세번째
이야기

바다가

소소하고 따뜻한
부산의 일상을 담은 책

바다가

세번째 이야기

바다가

소소하고 따뜻한
부산의 일상을 담은 책



빛나는 일광 # 꿈꾸는 바다



<바다가>는
모바일 웹진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웹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adaga.bmc.busan.kr

<바다가> 세번째 이야기

발행일 2021년 11월 5일
발행처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기획·진행 고객소통부 (Tel. 051-810-1484)
제작·인쇄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5)

함께 만든 이

글 정소야 김혜민 | 사진 차유진 최수지
디자인 권혜연 | 일러스트 김수진

바다가

세 번째 이야기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마을

나의 도시

일광 속으로

30살,

‘바다가 3호’의 마음

어느 직장인들처럼 ‘바다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입사를 하고, 경력을 더해가고, 퇴직을 하며 30년간 부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가 3호’의 ‘부산 테마’ 주제인 초록초록 농촌마을과 파란바다 어촌마을 사이 일광신도시는 시작한 지 14년이 흘렀고, 9,900호의 집을 짓는 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광배후신도시를 만드는 계기가 된 오시리아관광단지는 15년 전 막대한 사업비, 어려운 토지보상과 투자 유치로 모두 우려했지만 어느새 국립부산과학관,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가 들어서며 한 단계씩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래 걸려도, 처음의 계획과 간직해야 할 모습을 잘 품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다’가 ‘파도’를 만들 듯 부산의 공간과 일상을 만드는 건 ‘바다가 사람들’의 ‘사명’이니까요.

C O N T E N T S

부산테마 _____ 일광 스토리

- 06 마을 이야기 하나 일광 갯마을에 일렁이는 시(詩)와 숨
- 18 마을 이야기 둘 光나는 천지개벽, 일광신도시를 가다
- 24 일광 인터뷰 일광신도시 탄생기, 자연·소통·힘을 일구다
- 28 그린 플레이스 초록을 품은 일광신도시, 녹색랜드마크 엿보기
- 35 일광 MAP

부산핫플 _____ 일광 즐기기

- 36 일광 플레이스 동네 풍경을 바꾼 바다마을 카페, 건축을 만나다
- 44 카페 MAP 기장 해안길 카페 지도

부산동네

- 46 문현동 문현동의 두 가지 빛깔

바다가 이야기

- 54 바다가 특집 ① 모델 정병석으로 화려한 인생 2막!
- 56 바다가 특집 ② 창립 30주년 부산도시공사
- 58 바다가 특집 ③ 숫자로 알아보는 BMC
- 60 고객 축하 메시지 250명의 고객님의 축하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 62 바다가 핫이슈 바다가 주요 뉴스
- 64 I AM 바다가 직장생활 소통의 기술
- 66 독자 참여



이천리
삼성리
학리

일광 갯마을에 일렁이는 시^詩와 숨

일광의 속살은 시와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소설 <갯마을>의 무대이자
가수 최백호의 히트곡 <낭만에 대하여>의 배경이 되어준 곳.
너무 아름다워 지나던 성인도 걸음을 멈추었다는 곳.
일광의 오랜 마을, 이천리·삼성리·학리마을을 천천히 걸어본다.

자문 이성훈 선장

빛의 역, 일광역

— 1

빛의 역 일광. 1935년 10월 삼성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1949년 일광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5년 무배치 간이역이 되었고 2009년 4월, 동해선 복선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옛 역사가 철거되었다.
 일광역은 동해선 일광역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했다. 동해선 일광역의 의미는 단순한 전철역의 개통이 아니었다.
 일광이 부산 도심과 닿는 시간이 단축된 만큼, 도심 성장의 미래도 더 가까워졌다.
 비로소 진짜 빛을 가져다주는 '일광(日光)역'이 된 것이다.



반농반어 어촌마을

일광은 전형적인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촌 마을이었다. 남자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여자들은 육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어촌은 농사 지을 땅이 넓지 않아 언덕 부근에 있는 자투리 땅에 밭을 일구었다. 여인 중에는 해녀가 되어 바다에서 미역, 다시마, 전복 등을 따서 생계를 잇기도 했다. 일광해변의 수석을 채취해 수석 집을 여는 이도 많았는데, 이천리에서 이동항까지 다다른 길마다 아름다운 수석이 즐비한 덕분이었다.

| 2



비밀과 전설을 간직한 당산나무

3

옛날부터 크고 오래된 나무 곁에는 사람이 모였다. 약속의 장소이자 소망을 기원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천마을 낮은 계단 위 언덕에는 성황당이 자리해 있다. 그 주변으로 2~300년은 된 듯한 거목들이 숲을 이룬다. 성황나무는 같은 품종으로 심는 것이 보통인데, 특이하게 이천리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말채나무 3가지 품종이 어우러져 어깨를 나누고 있다. 오래 사는 느티나무는 대표적인 당산목이고 팽나무는 갯바람에 잘 견디는 나무이며 말채 나무는 지네가 피하는 나무이기에 심었을 것이다. 제각기 자신의 역할을 든든히 해내며 세월을 견뎠을 거목들의 풍경.



느티나무 아래 단단한 등치에서 삶을 오롯이 감당하며 살아냈을 간절함과 억척스러움을 보고, 하늘을 향해 뻗은 팽나무 가지에서 바다로 사랑을 떠나보내고 그리워했을 갯마을 여인들의 애절함을 느낀다. 울퉁불퉁한 마디마디 갯마을의 수많은 비밀과 전설을 품고 선 거목의 굵이굵이가 더없이 경이롭다.



4

집의 구조와 형태



일광의 집들은 산·구의 매력에 묘하게 뒤섞여 있다. 옛 가옥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지붕만 신식으로 바꿔 단 집들이 많고, 옛 집들 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옛집과 새집의 출입구가 다른 곳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천리 바다 앞 오래된 집들 앞에는 군데 군데 돌담이 쌓여 있다. 모래와 자갈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어 졌을 옛집들이다. 그 시절에는 파도가 조금만 쳐도 집 앞마당 까지 바닷물이 올라왔을 테다. 소설 <갯마을>에 나오는 '동해 파도가 돌각담 밑을 찰싹대는' 이란 표현에서 당시 모습을 짐작 해볼 수 있다. 바다 곁의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었을 돌담.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집 앞에는 파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콘크리트 매립 제방이 만들어졌다. 돌담은 일을 잃었지만 그 흔적만은 옛 전우처럼 남아 정다운 정취를 자아낸다.



소설 속
갯마을 이야기

5

일광은 오영수 작가의 소설 <갯마을>의 무대이며, 영화 갯마을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서(西)로 멀리 기차 소리를 바람결로 들으며, 어쩌면 동해 파도가 돌각담 밑을 찰싹대는 H라는 조그만 갯마을이 있다.’ <갯마을> 속에는 바다에 남편을 빼앗기고 억척스럽게 살아낸 갯마을 여인들의 한 맺힌 삶이 담겨 있다.
 특히 일광 이천리 해녀복지회관은 갯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건물이다. 열 살 때부터 잠수를 배운 해녀의 딸, 물일에 능했던 주인공 해순이가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최백호의 남만에 담긴
소라다방

6

일광에서 나고 자란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이는 가수 최백호다. 그의 히트곡 '남만에 대하여'를 곰 씹어보면 '밤늦은 항구 선창가에서 슬픈 뱃고동 소릴 들어보려는 구절이 나온다. 항구가 있던 옛 일광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곳은 비 내리는 날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색소폰 소리를 들던 다방도 일광에 있었다.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이던 '소라다방'은 수년 전 문을 닫았지만 이천기화교 등 일광을 걷는 길마다 가수 최백호의 자취를 밟을 수 있다.





빼어난 정취의
일광해수욕장과
삼성대

— 7 —

일광해수욕장의 풍경은 기장 8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 과거에는 해안선을 따라 노송숲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고려시대 부터 정몽주를 비롯한 성인들이 유람했던 절경 중 하나였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 있는 둔덕인 '삼성대'는 세 명의 성인이 경치에 반해 풍광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삼성대는 '삼섬대'가 그 어원인데, 섬은 약수섬, 섬은 배를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 가물에도 마르지 않는 진귀한 약수가 솟았다고 전해지는 만큼 귀하게 여겨진 곳이다.



삼성대 표지석 옆에는 고산 윤선도가 지은 2수의 시 <증별소제(贈別少弟)>가 새겨진 시비가 있다. 기장 바닷가에서 귀양살이하던 그가 동생과 만나 헤어지는 절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별을 당하여 오직 천 갈래 눈물만이
네 옷자락에 뿌려지며 점점이 아롱지네.*

*제일 무정한 건 이 가을 해이니
헤어지는 사람 위해 잠시도 멈추지 않네...*

- 고산 윤선도 <증별소제> 중





일광을 다시 찾게 하는 맛

— 8 —

찐빵과 열무국수

일광 이천리는 손맛이 좋은 동네다. 이천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값싸고 맛 좋은 찐빵집이 모여 있다. 찐빵과 만두 모두 반죽부터 속 재료까지 손수 만드는데, 식감이 뛰어나고 푸짐한 소를 꽉 채워 입안 가득 베어 물면 금세 행복해진다. 예전에는 더 많은 찐빵집이 즐비했지만 지금은 호찐빵, 일광당, 천지 바로 손만두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찐빵집 바로 맞은편에는 '백중원의 3대 천왕'에 출연했던 열무국수 맛집이 있다. 열무김치가 통째로 나오는데, 가위로 듬성듬성 썰어 국수에 올려 먹으면 새콤달콤한 국물과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기가 막힌다.



일광의 바다 향

일광 바다를 걷다 보면 어느새 바다향 그득한 해산물 요리 생각이 간절해진다. 일광역 인근에는 복요리 전문점으로 유명한 '일광대복집'이 있다. 오래된 동네 맛집이지만 동해선 개통 덕에 더 유명해졌다. 뜨끈뜨끈한 복국을 호호 불며 떠먹으면 깊은 속까지 온기가 돈다. 보약을 한 사발 들이킨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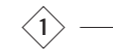
동해선 개통 탓에 자리를 옮긴 '미청식당'도 빼놓을 수 없는 맛집이다. 흰밥 위에 성게알을 듬뿍 얹어 비벼 먹는 성게비빔밥(양장구밥)은 일광의 바다향을 입안 가득 선물한다. 일광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맛이다.



光 나 는 천 지 개 벽

논밭과 숲풀 뿐이던 허허벌판 위에 길이 나고 삶의 터전이 만들어졌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부산의 빛나는 도시,

일 광 신 도 시 를 가 다



빛나는 탄생, 일광신도시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
일광신도시가 탄생하기까지 장장 14년이 흘렀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계획된 배후신도시로,
2007년 3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변경되면서 시작된 꿈.
124만㎡ 대지 위에서 꾸었던 부산도시공사의 꿈은
9,900세대 주민들의 꿈으로 부풀어 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만들고 있다.



연결을 통한 화합과 어울림



목적지가 어디든 빨리 쉽게 닿을 수 있는 곳, 일광신도시는 연결과 조화의 도시다. 최근 동해선 일광역이 개통하며 일광은 30분이면 부산 도심 곳곳과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또한 부산-울산을 잇는 국도14호선이 개통하고, 기존 철도길을 재개방해 만든 일광 원도심 연결도로, 북측 저류지 옆 후동 과선교(접속도로), 이진캐스빌 옆 교리진입도로, 삼성지하차도 조성 등 신·구가 교류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도로를 최대한 많이 연결했다. 일광신도시는 기존 마을들과의 조화를 통해 완성되어가는 새로운 상권이다. 신·구 두 도심의 연결과 소통의 시너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화될 때, 진짜 행복하고 안정적인 도심이 완성될 것이다.

연결의 도시

- # 동해선 일광역 개통
- # 국도 14호선 개통
- # 일광 원도심 연결도로 개통
- # 북측 저류지 옆 후동 과선교 개통
- # 이진캐스빌 옆 교리진입도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 도시

— 3 —

고개를 둘러 보는 어디든 푸른 숲을 볼 수 있는 곳. 일광신도시는 일광의 배산임수,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살려 계획한 녹색도시다. 거기에 주거용지 48.4% 대비, 공원·녹지 면적 21%, 근린공원 5개소, 보행자 전용 녹지축이 1.4km에 달할 정도로 친환경적인 도시다. 녹지를 기준으로 축을 만들어 숲 훼손을 최소화하고, 펜스를 설치해 산짐승의 삶터도 보존했다. 도심 한가운데 친환경 저류지 설계, 터널 상부 공원화, 빗물이 침투되는 투수블록과 친환경 나무 데크 등을 사용해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 녹색도시**
- # 친환경 저류지
 - # 친환경 도로
 - # 후동숲공원
 - # 삼성숲공원
 -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하는 일을 흔히 '천지개벽'이라 말한다.
 그 새로운 땅의 개척이 가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영위될 삶 때문이다.
 124만m²의 대지 9,900세대의 꿈이 생동할 부산 마지막 미니 신도시.
 '일광신도시'가 탄생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하기까지 장장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7년 3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변경되면서 시작된
 일광의 천지개벽 프로젝트는 2020년 비로소 완공되었다.
 눈발과 수풀뿐이던 허허벌판 위에 길을 내고 누군가의 삶과 꿈의 터전을 일구며
 신도시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빛나는 도시, 일광신도시 탄생기를 들어본다.



배경란 부장 허허벌판 부지를 주변과 조화되는 명품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이라는 시의적절한 아이디어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김정환 차장**

김화랑 차장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명품 신도시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명석 대리**



이재혜 대리 선례가 없던 사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했습니다. **최형석 대리**



#1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① — 일광신도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김정환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 맞물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배후 신도시를 조성한 것이지요. 2005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한국토지공사가 첫 시행을 맡았지만 사업 진척이 미진하자 2007년 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침체,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 보상 등 집단 민원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간 공사는 부산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택지개발사업보다 사업성 확보(임대주택 건설·공원녹지 비율 고려)에 유리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공사의 이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덕분에 일광은 마침내 사업추진에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② — 사업시행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정환 당초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약 598명에게 동의를 받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각종 평가와 검토,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도시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했습니다. 교육용지 협의도 쉽지 않았습니. 당초 공사는 사업지구 내 무상으로 개발할 학교용지를 규정면적 대비 117%(초2, 중1, 고1)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용지 면적과 위치가 공사와 괴리가 커서 함께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했지요. 결국 위치와 면적을 협의하는 데만 10개월이 걸렸지만, 관련법과 규정·사례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최고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③ — 타 신도시와 다른 일광신도시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배경란 뒤는 일광산이고 앞은 일광해수욕장인 배산임수 지형이라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지요. 거기에 일광신도시는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주거용지는 48.4% 밖에 되지 않아요. 도로 17%, 학교 5%, 공원·녹지 21%, 근린공원 5개소, 보행자 전용 녹지 축이 1.4km에 달할 정도지요. 무엇보다 일광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살리며 도시를 계획한 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녹지를 기준으로 축을 만들어 숲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호

펜스를 설치해 야생동물들이 놀라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연결되는 교리진입도로 건설도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시공방식을 변경해 상부를 공원화하고, 빗물이 침투되는 투수블록과 친환경 나무 데크를 사용한 점도 두드러집니다. 도심 한가운데 친환경 친수공간인 저류지(2곳)도 만들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통 CCTV 1대가 경찰 20명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충분한 CCTV 설치 뿐 아니라, 학교 인근에 펜스를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사가 가장군 전역에 CCTV 100대(10억원 상당)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④ — 교통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경란 2016년 12월 동해선 일광역이 개통하면서 일광역의 장점이 인기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일레로, 동원 비스타 2차 아파트는 처음에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일광역 바로 옆 역세권, 바다 조망인 만큼 고급화·대형평수·고가 전략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광역 개통으로 벅스코, 고대 등 부산 주요 도심과 20~30분 내에 닿을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산-울산을 잇는 국도14호선도 조기개통을 통해 큰 연결의 흐름을 만들었고, 기존 마을과의 연결 도로도 최대한 많이 신설했어요. 기존 마을과 철도로 단절되었던 것을 철도하부를 관통해 만든 일광 원도심 연결도로, 복측 저류지 옆 후동 과선교(접속 도로), 이진캐스빌 옆 터널식 교리진입도로, 국도 14호선을 확장·입체화한 삼성지하차도 조성 등이 그 결과물들이죠. 신도시는 절대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도심·상권과의 연결을 통해 일광이라는 지역 자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하죠. 신·구 두 도심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화될 때, 행복하고 안정적인 신도시가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⑤ —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민원도 많았습니다. 어땠나요?

배경란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완공해놓은 도로가 파손되어 재시공하기도 하고, 비산 먼지·소음·어업피해 민원 등 셀 수 없는 민원들이 쏟아졌어요. 당시 주민들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많이 귀 기울이고 반영해드리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생수 방류 민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욕실, 주방 등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어디로 방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했어요. 결국 재검토 용역을 통해 여러 대안들에 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일광 내 공공하수 처리시설 정수능력을 인정받은 뒤에야 최종안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김화량 2020년 1월 일광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진입로(국도14호선 울산-부산방향) 차량 정체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차량 정체 구간이 500m 이상 늘며 해당 민원만 300건 이상 발생했지요. 책임 이행기간은 이미 지난 시점이었지만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기장경찰서·진영 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6차례 협의를 거치며 3억 원을 지원, 분리대 철거, 단속카메라·시선 유도봉 설치, 노면 재포장 등을 시행했습니다. 또 최고 속도를 70km에서 60km로 하향 조정하는 등 다방면의 해결책을 고심한 결과, 교통 정체를 확연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여러 기관들과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였기에 보람과 성취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⑥ —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의 소회를 말씀해주세요.

배경란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 부지가 이렇게 천지개벽할 만큼 명품 신도시로 변화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개발사업을 위해 수없이 오고 가며 밟았던 부지들을 보면 옛 모습이 오버랩 되어 추억에 잠길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일광에 오면 엄마회사에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부산의 지형을 다시 썼다고, 엄마와 부서 직원들이 핵심멤버였다고 이야기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김화량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들로 인해 지금도 자주 일광지구에 방문하게 됩니다. 예전 먼지만 날리던 땅에서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민들로 북적이는 도시를 볼 때, 공사가 만든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작년 일광지구 마지막 행정 처리를 끝내느라 결혼식 일주일 후에 신혼여행을 떠났던 일도 떠오릅니다. 늦은 신혼여행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준 아내에게 참 고맙네요.(^^) 일광지구 개발사업 이후 제게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랜드마크 시설을 유지하는 등 일광보다 더 큰 규모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해보고 싶습니다.



#2 일광 3, 5-6BL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① — 건설사업 추진 배경 등 경과를 알려주세요.

최형석 일광 3, 5-6BL은 우리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투자·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공공택지에서 입주민들에게 선호도 높은 브랜드사 아파트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를 공모 및 선정해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기본·실시설계,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공사 착공부터 준공 후 입주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② —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업무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명석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민간과 공동으로 건설해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광 3, 5-6BL의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용지에 대림산업컨소시엄(3BL), GS건설푸르지오컨소시엄(5,6BL)이 각각 주택을 건립했습니다. 본격 분양 전에는 건설사와 분양 계약·관리 시스템, 중도금 대출협약, 입주자 관리, 상가시설 분양 등 분양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분장을 결정합니다. 이후 사업 부서와 협의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절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③ — 일광 3, 5-6BL 공공분양주택만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최형석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조경, 아름다운 경관조명 등 다양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꼽는 최고의 자랑거리는 일광신도시를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e편한세상 일광의 랜드마크동, 도로와 평행으로 정렬되어있는 일광자이푸르지오의 동배치로 펼쳐진 웅장한 전경, 일광 3,5-6BL의 각 단지별 개성 넘치는 도색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 일광신도시의 분양 인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재혁 2017년 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이틀간 일광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접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일광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로 접수 첫날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고, 사상 최초로 온비드 서버가 다운되어 분양 일정이 하루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접수된 일광신도시 단독주택용지의 최고 경쟁률은 3,901 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권은 이후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과열양상이 번져 2017년 기장군이 부동산 조정지역에 지정되는 이슈를 낳기도 했습니다.

⑤ — 사업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주명석 당시 각종 감사와 동래행복주택 공급 등 현안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주택법 등을 펼쳐보며 업무연찬을 하고 주중에는 정신없이 일하느라 휴가도 쓰지 못했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는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이재혁 일광 3, 5-6BL은 공사에서 추진한 공공분양아파트였습니다. 선례가 없는데다 입사하자마자 처음 맡은 주택분양 업무였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분양부터 입주관리까지 타 기관 사례들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수시로 확인하며 진행한 만큼 시간도 몇 배로 걸렸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형석 민원이지요. 그중에서도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주택이니 저렴한 자재를 사용한다'고 오해한 민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렴한 분양가가 저렴한 자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민원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에게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⑥ —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주명석 입사 2년차때 공공분양아파트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감사원 본청에 올라가기도 하고, 법률구조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출장을 가는 등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지만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재혁 공공분양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때 저마다의 사연으로 찾아오는 고객과 만나게 되는데, 울며 하소연하는 고객, 욕설과 폭력으로 화를 쏟아내는 고객과 마주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 너무 좋아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공공분양아파트 상가 분양 당시, 일광지구 내 상가 분양률이 10%도 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지만 유관기관 담당자·동료 직원들과 합심해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구 내 최초 완판을 해내 정말 기뻐했습니다.

⑦ — 돌이켜 보면 뿌듯하고 값진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주명석 갑자기 동래행복주택과 일광 공공분양주택·상가분양을 담당하게 되고, 부산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겪으며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했던 주택·상가를 완판한 뒤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기뻐했습니다. 업무적 성장을 한 것 같아 값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혁 처음 아파트 분양·관리 업무를 맡을 당시, 전매가 된 주택 담보대출이 뭔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 아파트 분양 흐름 정도는 짚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⑧ — 감사한 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명석 함께 고생해주신 김종완 부장님, 정재현 실장님의 수고가 크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일한 동료 직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주택사업처 이상훈 부장님과 최형석 대리의 도움으로 업무를 수월하게 한 것 같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재혁 함께 분양파트 업무를 진행하며 분양·계약취소, 재분양 그리고 입주관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 관련 지식을 공유해주시고 도와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입주 시즌에는 휴대폰 통화목록 전체를 채우기도 했던 분, 이 자리를 빌려 GS건설 이영미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형석 업무처리과정도 잘 모르면서 열정만 넘치던 신입사원 시절, 첫 업무로 일광3,5-6BL 공공주택건립이라는 큰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 속에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수였던 이상훈 부장님과 업무 전임자였던 신용재 차장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신 덕분에 불신을 확신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문제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 랜드 마크

옛보기

초록을 품은 일광신도시

일광신도시는 초록의 도시다. 배산임수 지형과 숲을 최대한 보전하며 도시를 만든 데다, 공원·녹지비율만 20%가 넘는다. 슬리퍼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 길, 어디서든 숲과 나무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초록도시, 부산도시공사가 조성한 일광신도시 내 녹색 랜드마크를 걸어본다.

일광역 광장
“아쁜하루,
팍나무그늘아래서
누리는 행복 한스푼.”

친환경 저류지 북측
“연꽃과 버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친환경저류지!”

후동숲공원
“고라니, 청설모, 딱새를
만날수있으니
조심조심!”



아라공원
 “아이들의 천국,
 미니우터파크
 개봉박두!”



친환경 저류지 남측
 “밤에는 로맨틱한
 야간 조명사이로
 사뽀사뽀!”

장미테마원
 “5~6월에는
 달콤하고 황홀한
 장미향에 흠뻑!”



아라공원

아라공원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워 주는 놀이·휴식공간이다. 사계절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에 더해 여름이면 미니 워터파크로 환상적인 대변신! 놀이터 주위로는 일광의 오래된 나무들을 옮겨 심어 주민들의 시원하고 너그러운 그늘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아라공원 워터파크가 개장하면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일광역 광장

일광역 광장 옆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넓게 펼쳐진 팡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며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인근에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저류지 산책로와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도 있으니 같이 걸어보자.



장미테마원

장미테마원은 일광의 하천 물길을 따라 조성된 장미정원이다. 수만 송이 장미가 만개하는 5~6월경 정원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색과 향기가 일광을 물들인다. 향긋한 장미 향기를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볼 것.



후동숲공원 & 삼성숲공원

일광의 숲공원들은 자연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산수유, 배롱나무, 살구나무, 이팝나무 등 저마다 이름 다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이곳은 자연 원형 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라니, 청설모, 딱새 등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야생동물 이동을 위해 생태통로를 그대로 보존해두었다. 공원 산책로를 걷다 야생동물을 만난다면 동물들이 놀라지 않도록 쉼! 사뿐사뿐 조용히 걸을 것.





친환경 저류지

일광신도시 내에는 남북으로 두 곳의 친환경 저류지가 있다. 물 위로 촘촘히 박힌 연잎과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이 초록의 청명한 빛을 낸다. 저류지 위로는 나무 데크길이 이어져 유유 자적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진 저녁에는 은은한 조명 빛이 어둠을 비춰 아름다운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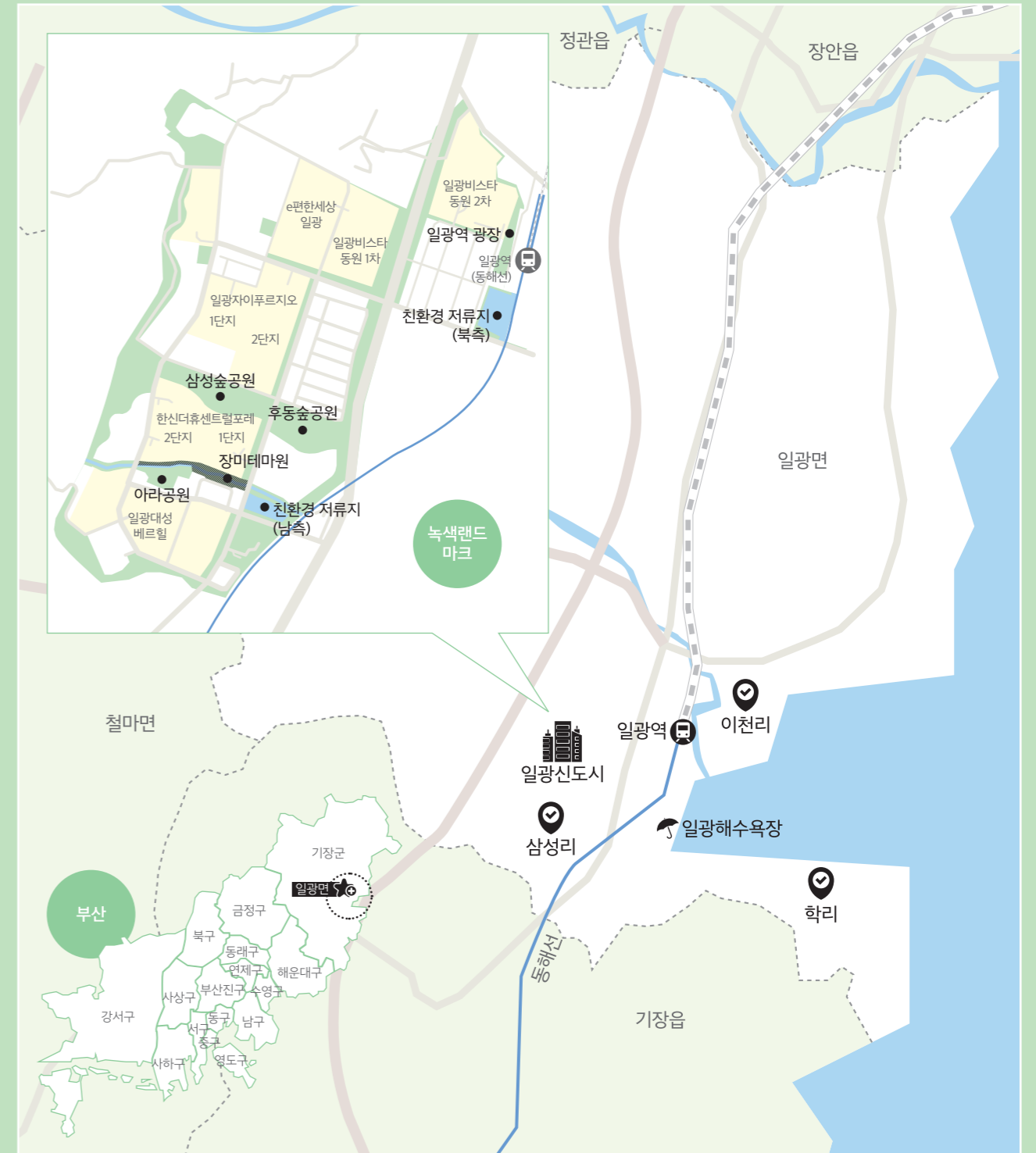


부산도시공사 최수종 과장



일광신도시 공원·녹지 등 조경공간을 조성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목의 규격·밀도 등을 높여 주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풍부한 녹음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공원 콘셉트에 어울리는 해시계, 바람개비 등 시설물을 고민하고, 보행자 도로의 포장패턴 디자인 하나도 세심하게 검토하며 주민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현장을 보면 항상 조금씩 아쉬기도 하지만, 우리공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고민하고 노력해 조성한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고 소중하게 가꿔가기를 바랍니다.

일광 MAP



원적했던 포구마을의 변화가 눈부시다.
 이따금 정겨운 바다마을 분위기를 느끼고자 하는 여행객들만이 들르곤 하던 가장 해안이
 개성 있는 건축카페 집결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부산 대표 관광코스로 거듭난 것이다.
 임랑해수욕장에서 동부산 해변까지 이어지는 약 20km 안팎의 해안로는 이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의 경연장이 됐다.
 해안로를 따라 걷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것만으로 멋진 건축을 감상할 수 있으니
 인증샷을 남기고자 하는 귀내외 여행객들과 건축학도들에게도 큰 인기.
 인근으로 거대 쇼핑몰과 테마파크, 특급호텔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조성돼 있어
 기장에 머무는 것만으로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바다와 건축, 그리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장의 해변카페를 소개한다.

동네 풍경을 바꾼 바다마을 카페 카페, 건축을 만나다





1

Mer de cour 메르데쿠르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871-1
☎ 051-724-5145
🌐 http://instagram.com/merdecour_official
🕒 11:00~22:00 (Last Order 21:30)

하얀 등대와 거대 어선을 연상시키는 건축으로 부산스러움을 표현한 메르데쿠르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들어서기 전부터 방문자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는 곳이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한 몸인 듯 느껴지지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A동과 B동으로 분리된 점이 독특하다. 건물은 꼭대기 루프탑에서 다시 연결돼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는 건물 전체를 신축하듯 여유롭게 둘러보았으면 하는 건축가의 바람이 녹아있는 것이다.

카페의 이름인 '메르데쿠르'는 프랑스어로 앞물의 바다라는 뜻. 카페 대표메뉴 역시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보랏빛과 노란빛이 공존하는 레몬에이드 '앞물의 바다'는 독특한 색감으로 시선을 찌기에도 안정맞춤. 이 외에도 라테에 오렌지를 넣어 상큼함을 더한 '렐저린라떼'와 직접 만들어 더 부드러운 '소호밀크티' 등이 이곳의 대표하는 음료다. 베이커리 카페를 표방하는 만큼 크루아상, 스콘, 에그타르트 등 다양한 빵을 맛볼 수 있으며, 브런치 메뉴도 갖추고 있어 간단한 식사를 하기에도 손색없다.



2

Twosome Place 투스엄플레이스 기장일광해변점

☎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해안로 1290
☎ 051-723-0819
🌐 http://www.instagram.com/twosome_ikwang
🕒 10:00~23:00 (Last Order 22:00)

지난 2018년 문을 연 투스엄플레이스 기장일광해변점은 기존의 프랜차이즈 카페들과는 달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대신 카페 입지와의 어울림을 고려한 설계로 크게 주목받은 곳이다. 바다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파도, 흩어지는 물보라 등 일광해수욕장에 담긴 요소들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해 이곳에서만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풍광을 선사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부산다운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창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일광 해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3층 루프탑으로 설치된 인피니티 풀을 마주하는 순간 경험의 너비는 더욱 확장된다. 특히 커다란 피리솔 아래 놓인 선베드에 누워있노라면 멀리 휴양지로 떠나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디지털 전문 카페답게 디체로운 케이크와 음료를 갖추고 있어 취향껏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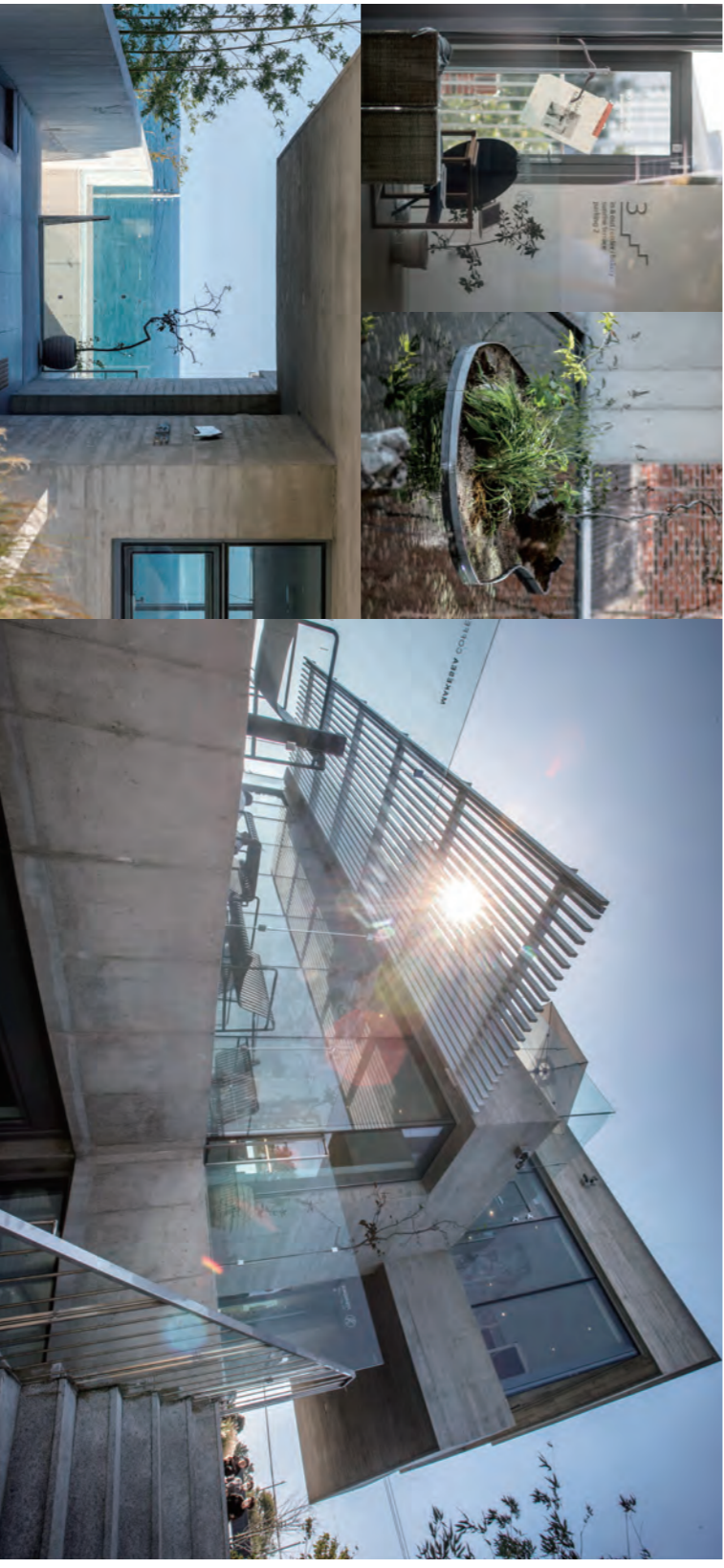


3

Lowa Mansion 로이맨션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리2길 6
051-723-9313
<http://instagram.com/lowamansion>
10:00~22:00 (Last Order 21:30)

건축과 인문을 접목한 콘텍트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유현준 건축가의 사무소에서 설계해 더욱 화제가 된 로이맨션 총 3개의 건물로 나뉜 카페는 독특하게도 오르내리는 계단이 외부로 노출되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건물과 건물이 마주하며 빛어내는 공간인 중정(中庭)은 특히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과 반려동물 동반객에게 좋은 대안이 되어준다. 작은 연못, 종이배 모형의 조형물 등의 요소가 함께 배치되어 인증샷을 남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계단을 오르면 마주하는 일광 바다의 풍경 역시 놓칠 수 없는 포토스팟. 카페의 로고를 담은 조기비 모양의 양종맞은 디자인인 마들렌과 스콘, 크루아상 등 다양한 베이커리는 매일 매장에서 직접 구워내 더욱 달콤하다. 수제청으로 만드는 상큼한 음료 역시 추천 메뉴. 예약제로 운영되는 프라이빗 파티룸이 갖춰져 있어 모임장소로도 제격이다.



4

Makesea Coffee 메이크씨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754
051-723-9313
<http://www.instagram.com/makeseacoffee/>
11:00~21:00 (Last Order 20:30)

도로변에서 보면 2층짜리 카페지만 반대편 해안로에서 바라보면 4층짜리 카페임이 명백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메이크씨. 이 건물의 독특한 건축미는 무려 8m의 높이 차이가 존재하던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던 건축주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건축가는 카페의 저층부를 낮은 필지와 연결시켜 인근 어촌마을인 문동리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층부는 높은 필지와 연계해 어느 쪽에서 보아도 어색하지 않은 조화로운 풍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마을 주민들은 카페 계단을 통해 도로를 오가고, 카페 손님들은 에메랄드빛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으니 진정한 의미의 소통 건축이 탄생한 셈이다. 메이크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좌석은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배경 삼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3층이다. 허지만 실제 선상에 오른 듯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는 루프탑도 놓치기 아쉬운 포토스팟이다. 달콤한 망고를 사용해 만드는 음료와 케이크 등이 이곳의 주력메뉴이며 이외에도 크로플, 잠봉보르 샌드위치 등 요즘 유행하는 메뉴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5

Waveon Coffee 웨이브온

☎ 부산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286
☎ 051-727-1660
🌐 http://www.instagram.com/waveoncoffee_official
🕒 10:00~24:00 (last order 23:00)

지난 2016년 문을 연 웨이브온은 한적했던 해안가를 연간 약 9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며 이슈가 된 카페다. 한국관광공사가 엄선한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이자, 한국건축문화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건물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두 개를 엇갈리게 포개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맛들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내부구조는 더욱 독특하다. 3층 규모의 건축 내부 중앙을 트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계단과 스탠드를 배치해 공간의 입체성과 역동성을 높였다. 카페는 야외 공간과 연결되며 더욱 빛을 발한다. 특히 우리 고유의 좌식 커뮤니티 공간인 평상(平床)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야외 좌석은 마치 야외소풍을 떠났듯 경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카페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여행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해 더욱 신선한 커피 역시 이곳을 방문하는 즐거움 중 하나. 풍부한 베르가못 향이 인상적인 '월내 라떼'와 100% 통밀로 만든 '고소 통밀 라떼' 등이 이곳을 대표하는 메뉴다. 전문 제과점이 만드는 심세하고 예쁜 케이크도 인기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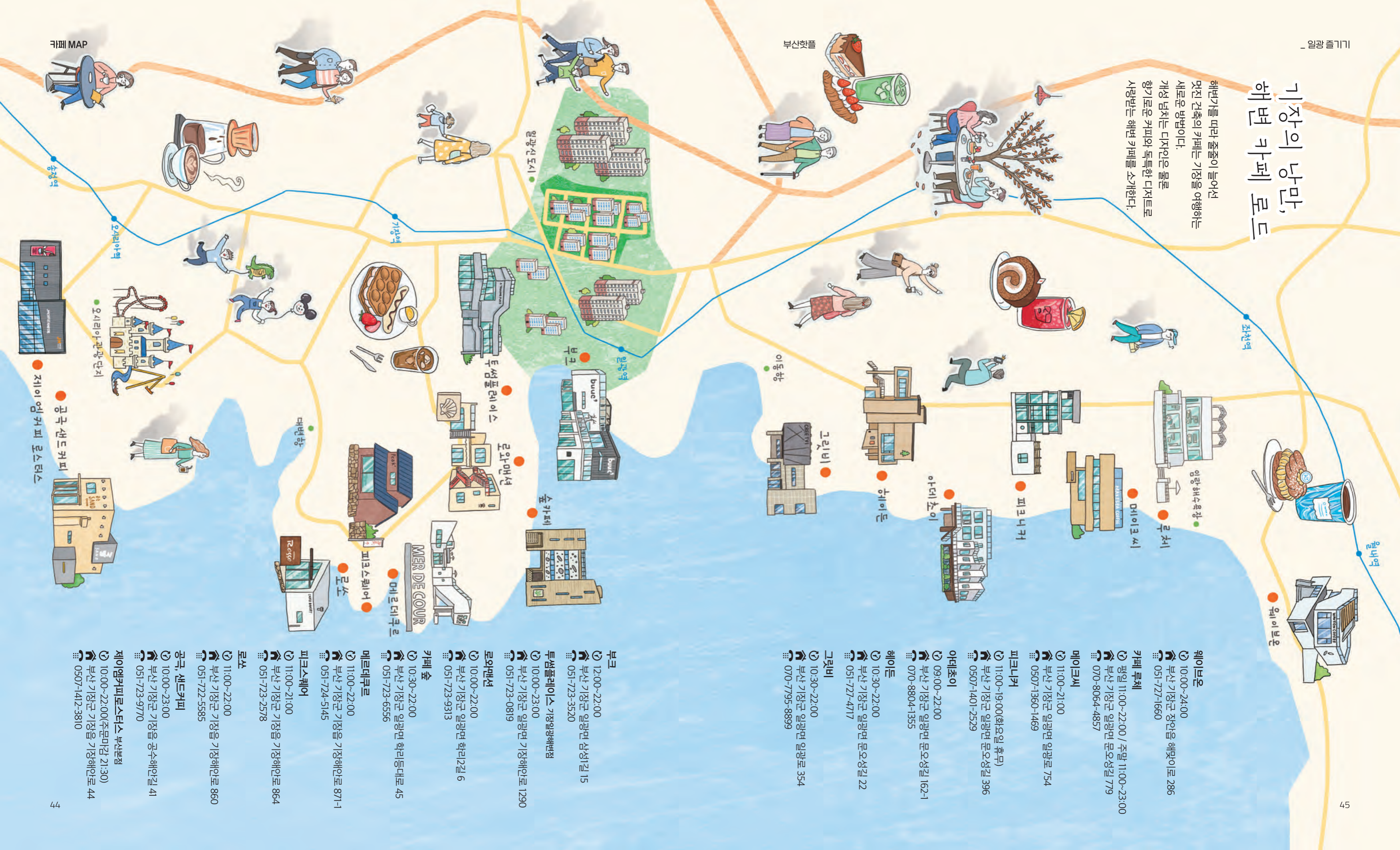
A'de Choi 아데초이

☎ 부산기장군 일명면 문오성길 162-1
☎ 070-8804-1355
🕒 09:00~22:00

외관에서 느껴지는 모던한 첫인상과는 달리 카페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클래식한 호텔에 들어선 듯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펼쳐지는 카페 아데초이. 벽면을 가득 메우는 강렬한 컬러감의 대비와 천장을 수놓은 화려한 샹들리에,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클래식과 재즈 음악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낮선 여행지로 떠나온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동백리 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며 달콤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어 유난히 단골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마니아층을 거느릴 정도로 수준급의 디저트를 선보이는 카페는 동경제과학교 출신이자 이곳 제과제빵을 책임지는 주인의 손길에서 탄생한다. 밀푼유, 생과일피어, 피칸파이 등의 대표 메뉴 외에도 다양한 케이크와 빵, 쿠키, 마카롱 등이 판매 중이다. 옥수수, 완두콩, 양파 등 직접 만든 건강한 스프와 뇨끼, 샌드위치 등의 브런치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 간단한 한 끼 식사를 하기에 손색없다.

기장의 낭만, 해변 카페 로드

해변기를 따라 줄줄이 늘어진 멋진 건축의 카페는 기장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은 물론 향기로운 커피와 독특한 디저트로 사랑받는 해변 카페를 소개한다.



웨이보온

- 웨이보온
- ☎ 10:00~24:00
- ☞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286
- ☎ 051-727-1660

카페 루체

- 카페 루체
- ☎ 평일 11:00~22:00 / 주말 11:00~23: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오성길 779
- ☎ 070-8064-4857

메이크세

- 메이크세
- ☎ 11:00~21: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754
- ☎ 0507-1360-1469

피크닉커

- 피크닉커
- ☎ 11:00~19:00(화요일 휴무)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오성길 396
- ☎ 0507-1401-2529

아데초이

- 아데초이
- ☎ 09:00~22: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오성길 162-1
- ☎ 070-8804-1355

헤이든

- 헤이든
- ☎ 10:30~22: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오성길 22
- ☎ 051-727-4717

그린비

- 그린비
- ☎ 10:30~22: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354
- ☎ 070-7795-8899

부크

- 부크
- ☎ 12:00~22: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길 15
- ☎ 051-723-3520

투스텀플레이스

- 투스텀플레이스 기장일광해변점
- ☎ 10:00~23: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해안로 1290
- ☎ 051-723-0819

로이맨션

- 로이맨션
- ☎ 10:00~22: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2길 6
- ☎ 051-723-9313

카페 숲

- 카페 숲
- ☎ 10:30~22:0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들대로 45
- ☎ 051-723-6556

메르데쿠르

- 메르데쿠르
- ☎ 11:00~22:00
-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871-1
- ☎ 051-724-5145

피크스퀘어

- 피크스퀘어
- ☎ 11:00~21:00
-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864
- ☎ 051-723-2578

로쏘

- 로쏘
- ☎ 11:00~22:00
-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860
- ☎ 051-722-5585

공극, 샌드커피

- 공극, 샌드커피
- ☎ 10:00~23:00
-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공수해안길 41
- ☎ 051-723-9770

제이엠피로스터스

- 제이엠피로스터스 부산본점
- ☎ 10:00~22:00(주문미감 21:30)
-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44
- ☎ 0507-1412-3810

문현동의 두 가지 빛깔

문현의 풍경은 둘로 나뉜다. 옛 주택가의 모습을 간직한 문현1,4동과 금융단지 개발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춘 2,3동. 그 미묘한 경계와 조화가 매력적인 동네 '문현동'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금융단지 3단계 사업을 통한 2동의 혁신과 곧 재개발을 앞둔 1,4동의 탈바꿈이 그것이다. 잃기에 아쉬운 문현과 새 희망으로 들쭉이는 문현, 그 풍경 속을 걸어 보았다.





문현동

문현동의 양가적 풍경

문현동은 무릇 양가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동네다. 행정구역상 남구에 속하지만 북쪽으로는 북적이는 중심가 서면과 가깝고, 동·서로는 조용한 주택가인 남구 대연동과 동구 범일동과 접해 있는 까닭이다. 특히 부산의 첨단 혁신도시 '문현금융단지'가 문현 2동에 위치해 있으니 이러한 양가성은 더욱 극대화 된다.

부산동네



48



문현동의 풍경을 둘로 나눈다면 1,4동과 2,3동으로 경계 지을 수 있다. 실제 완전히 다른 동네의 느낌을 자아내는데, 1,4동은 옛 주택가로 이루어진 재개발 구역인 반면, 2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혁신도시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서 있다.

문현금융단지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도시다. 63층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한국은행, BNK부산은행 등 금융 빌딩이 모여 있어 첨단 도시의 느낌을 준다.

이러한 문현금융단지 개발에 맞춰 들어선 신 주거지가 문현3동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삼성힐타워, 삼성아파트, 대우이안아파트, 한화꿈에그린 등 고층 브랜드 아파트가 모여 금융단지 유리빌딩들과 어깨를 견준다.

49



문현 안동네의 과거와 미래

주택가인 문현1,4동은 문현2,3동의 고층 유리빌딩과 단박에 대조를 이룬다. 특히 문현1동은 어디에서든 고개를 돌리면 우뚝 솟은 63층 국제금융센터 (BIFC)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낮은 주택이 주를 이룬 까닭이다. 주택가 인근에는 문현초등학교, 문현여자고등학교, 문현여자중학교가 자리해 있고, 학교 인근에는 오래된 문구점과 분식점이 남아 추억 속 정겨운 정취를 대변한다.



문현현대2차아파트 뒤편, 문현동에서 전포동으로 넘어가는 전포고개 일대에는 옛 '문현동 안동네 벽화마을'이 자리해 있다. 지금은 문현지역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몇 해 전만해도 관광객이 드나들던 역사적인 마을이었다. 급경사길에 자리해있어 흔히 불리던 이름은 '돌산마을'.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공동 묘지 터에 부산의 가난한 이주민들이 불법으로 판잣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골목, 현관, 장독대 옆에서도 무덤을 볼 수 있던 초유의 공간이었다. 그러던 곳이 2008년 부산시민과 학생들이 골목 담벼락마다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넣으며 이름이 알려졌고, 지금은 재개발을 기다리며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픈 역사와 옛 시간에 머물러있던 동네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문현, 새 옷을 입다

문현은 최근 새로운 매력의 문화·여가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현금융단지 인근에는 증권 박물관, 화폐박물관,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등 금융 관련 문화공간이 자리해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킨다. 부산 유일의 초대형 뮤지컬 전용극장인 드림씨어터, 실내동물원 캐니언파크, 초고층 스카이라운지를 갖춘 아바니호텔 등도 있어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인근에 코스모스 꽃밭, 강야지 산책로, 운동기구 등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채워졌다.



문현금융센터(BIFC) 길 너머로 다양한 색채의 카페, 레스토랑, 식당 등도 문을 열었다. 골목 사이사이 주택을 리모델링한 독특한 카페들도 눈에 띈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자리를 잡은 카페도 여럿이다. 어떤 방향에서건 변화로부터 뺄 수 없는 기분 좋은 상권의 활기다.

지금 문현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문현금융단지는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BIFC 1단계 63층 랜드마크 빌딩과 호텔, 주거시설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 2단계 복합개발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3단계 사업으로 핀테크·블록체인 등 기술 금융기관 등의 업무 시설과 BIFC 1단계 입주기관의 추가 업무공간이 개발 중이며, 기술보증기금 맞은편 일반용지 부지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더 큰 변화를 목전에 둔 옛 마을을 걸으며 기억해야 할 모습들을 상기해 본다. 안동네 벽화들에 담긴 따뜻한 위트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아이들의 웃음. 문현이 다 내려다보이는 돌산공원에서의 진정한 심과 계절을 오롯이 느끼게 해주는 바람과 나무의 빛깔. 새롭게 변화해갈 문현에도 문현동다운 따뜻한 감성만은 변치 않기를 소망해본다.



문화공간 in 문현

증권박물관(부산관)

증권 발행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국내 대표 금융박물관. 세계 경제 발전과 함께해 온 증권의 기원과 개념을 소개하고 희소가치가 높은 증권 자료를 수집·보존·연구하고 있다.

- ☎ 051-519-0600
- 📍 부산 남구 전포대로 133
- 🕒 무료
- 🕒 월~토, 10~17시(운영상황은 홈페이지 확인가능)



한국은행 부산본부 화폐전시관

고대 물품화폐부터 지금 화폐까지 세계 각국의 화폐 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100억 원 큐브, 나도 화폐 속 주인공 등 다양한 체험학습도 즐길 수 있다.

- ☎ 051-240-3700
-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25
- 🕒 무료
- 🕒 월~금, 10~17시



드림씨어터

1,700석 이상 객석 규모의 국내 최대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오리지널 스케일 그대로 구현 가능한 최적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라이언 킹>, <오페라의 유령> 등 글로벌 히트 콘텐츠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부산을 아시아 공연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있다.

- ☎ 1833-3755
- 📍 부산 남구 전포대로 133, 3층



레더모어 스튜디오

국제금융센터 인근에 위치한 가죽공방 스튜디오. 가죽으로 가방, 지갑 등 패션 아이템부터 생활 속 리빙 아이템까지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 010-5102-0914
-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5-1 2층
- 🕒 화~토, 12~20시(예약 후 방문)



젤라토레 공방

천연재료를 원료로 다양한 수공예 제품을 제작하는 공방이다. 원데이클래스를 신청하면 천연비누, 화장품, 캔들·디퓨저, 젤라토 등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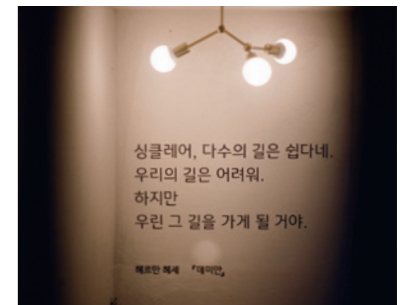
- ☎ 010-7336-4552
- 📍 부산 남구 고동골로 63-1 젤라토레공방
- 🕒 매일, 10~21시(예약 후 방문)



나락서점

독립서적을 판매하는 동네서점이자 카페. 서적 판매 외에도 독서모임과 작가 북토크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 ☎ 0507-1321-8406
- 📍 부산 남구 전포대로 110번길 8 지하1층
- 🕒 월~금, 15~20시



Senior Model

모델 정병석으로 화려한 인생 2막!

정병석 처장

30년간 부산도시공사 정병석으로 사업지를 활보하던 그가 이제 조금 다른 세계로 들어섰다. 평소 공사 패셔니스타이던 그였기에 런웨이를 걷는 상상이 전혀 낯설지는 않지만, 60대를 눈앞에 두고 '모델'이라니 대단한 도전임은 확실하다. 시니어 모델로 화려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정병석 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주위 반응은 어떠신지요?

모델이란 직업은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 고려하기 힘든 분야지요. 내가 먼저 길을 닦아주면 후배들도 좀 더 색다른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도 옷에 관심이 많고 패셔너블한 옷차림을 좋아하다 보니 친구들은 '딱 맞는 직업을 찾았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아들과 며느리도 패션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응원해주고요. 그런데 집사람과 딸은 '아빠는 평범하고 모델로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왜 허튼 일을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겠지요. 하하.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모델 겸승 오디션을 서울에서 했었는데, 서울 후보들의 옷이 굉장히 화려하더군요. 저는 너무 평범해 보였고요. 그 뒤부터는 젊은 친구들의 패션 스타일을 유심히 살피고 유행에 맞춰 따라 입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워킹 연습도 최대한 많이 하려 하고요.

부산도시공사 창립멤버로 입사해 30주년이 되셨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91년도에 입사해 벌써 30주년이라니,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친구 따라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저는 붙고 친구는 떨어졌어요. 허허. 그게 도시공사에 입사하는 계기가 되었죠. 30년이나 공사에 몸 담았으니 직원 입장에서 감회가 깊고, 퇴직해서 울타리를 떠난다 생각하면 조금 막막한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도 많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요?

올 1월부터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 8개월 차가 됐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시니어모델 아카데미에서 모델 워킹을 배워 2022 S/S 'K-TOP 시니어 모델 인 밴쿠버'에 참여했어요. 예선 5위로 본선에 올랐고, 본선 참가자 100명 중 최종 합격자 25명 안에 들어 밴쿠버 패션위크*에 진출하게 됐어요.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패션위크인 만큼, 꿈의 무대를 밟으며 모델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모델 도전은 어떻게 하신게 되셨나요?

공사 재무처장으로 있을 당시, 업체 직원들이 찾아와 '젊을 때 연예인 섭외 받지 않았냐며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얼마 전 우연히 시니어 모델이 워킹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더군요. 백화점 문화센터 시니어모델 아카데미에 찾아가 '나는 키도 작고 끼도 없는데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강사 분이 시니어모델은 키가 작고 잘 생기지 않아도 자기만의 매력이 있으면 도전해볼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지요.

나만이 가진 강점은 뭐라 생각하셨나요?

평소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40대에는 10년 정도 마라톤을 뛰고 40대 후반부터는 골프, 50대에는 헬스를 시작해 8년차가 됐어요. 공사에서도 체력 단력실 개선을 제안해 직원들과 같이 운동하기도 했어요. 직원들이 운동하며 다치지 않도록 자체 지도를 한 덕에 '비공식 관장'이란 별칭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헬스를 하니 차츰 근력이 생기고 몸이 보기 좋게 가꿔지니 밖에서도 당당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군요. 50대 후반까지 헬스로 몸을 가꾸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그게 제 큰 강점이라 생각했지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요?

패션모델 쪽부터 도전해보고 싶어요. 요즘 시니어 세대가 지출이 많다 보니,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분야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만큼 패션모델로 일을 시작해 서서히 더 넓은 분야로 진출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지금 소회가 어떠신지요? 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가 있으시다면요.

참 즐겁다! 인생 2막을 앞둔 지금, 꿈을 꾸고 도전하다 보니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퇴직을 앞두고 되면 새로운 도전으로 2막을 시작해야 할 거예요. 무조건 도전하면 길이 보인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혹시 그 길이 아니라면 멈추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요. 뭐든 즐거운 일을 찾아 도전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 밴쿠버 패션위크 _ 세계적인 시각과 고도화된 다문화적인 접근으로 2001년 창립 이후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패션위크로 성장했으며, 뉴욕-런던-파라-밀라노와 함께 세계 5대 패션위크로 알려져 있다.



부산을 위한 노력, 결실을 맺다

지난 9월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20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산도시공사는 '최우수'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부산 지역 공사·공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는 매년 전국 270여 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이며, 올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어 시행됐다.

부산도시공사는 평가분야별 고른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시민중심 경영·공적기능 강화라는 경영전략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 혁신을 추진해 온 노력과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 시민 지원실적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 입주민 긴급 주거재난 지원금(10억 원)을 지원하고, 9개 신규사업에 3조 298억 원을 투입하여 본연의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국제산업물류 도시 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으로 약 4,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제 서른, 시민공기업

창립 30주년 부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A regional public corporation
that creates the future of Busan

1991년 설립된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자산 4,957억 원과 정원 151명으로 시작한 공사는 자산 3조 원, 정원 306명 규모의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 성장했고, 창립 이후 지역발전과 시민주거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금년도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이라는 경경사를 맞게 되었다.

부산도시공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 30년에 걸친 성과를 바탕으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미래를 꿈꿔본다.

- ① 부산도시공사 사옥
- ②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 ③ 주민 커뮤니티시설 조성(희망플랫폼 2.0 사업)
- ④ 인생학교 프로그램(희망플랫폼 2.0 사업)
- ⑤⑥ 임대주택 조정공간 시설개선(다대5, 학장1)
- ⑦ 30년사 책자 발간
- ⑧ 창립 30주년 기념 이미지 광고

※ ②~⑧ 부산도시공사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시민의 희망을 딛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 1월 25일 창립 이후 지역발전과 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일해 왔다. 지역 곳곳에 택지를 개발·공급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해 왔으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삶의 희망을 전했다. 아울러 각종 산업단지, 항만 배후 부지, 관광단지, 혁신도시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부산 발전의 밑거름을 그리고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 그 한결같은 발걸음은 언제나 시민과 함께였으며, 그 길을 걷는 마음속에는 언제나 '시민을 위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있었다.

찬란했던 개발사를 지나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부산도시공사는 다시 출발점에 섰다. '부산의 미래를 창조하는 시민공기업'이라는 new mission을 선포하고 제2의 도약에 나섰다. 시대가 요구하는 부산의 미래모습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끝없는 변화와 도약을 해나갈 것이다. 새로운 시작에는 늘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부산시민들의 넉넉한 응원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떤 시련도 딛고 일어설 에너지는 충분할 것이다. 부산도시공사의 미래에는 부산시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



부산도시공사 창립 30주년
30년 전 우리는 부山的 땅과 집을 만들었고
20년 전 우리는 부山的 산업단지와 항만부지를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부山的 관광단지와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2021, 창립 30주년!
지금 우리는
부山的 일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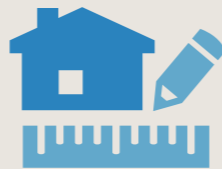
19개 지구 / 6.1km²
1.9조 원

주택건설



32개 지구
47,160세대 / 4.8조 원

임대주택 공급·관리



17,903세대
영구, 공공, 매입, 전세, 행복주택 등

<p>산업단지조성</p> <p>11개 지구 / 18.4km² 8.3조 원</p>	<p>도시개발</p> <p>13개 지구 / 12.6km² 5.8조 원</p>	<p>도시재생</p> <p>7개소 / 3,011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5개소 노후공간복합개발 2개소</p>	<p>공공건축</p> <p>15개 지구 / 20만m² 3,712억 원</p>
<p>총자산·총자본·부채</p> <p>총자산 1991년 4,957억 원 → 2020년 3조 863억 원 총자본 1991년 2,114억 원 → 2020년 1조 9,493억 원 부채 2011년 2조 6,298억 원 → 2020년 1조 1,370억 원</p>	<p>예산규모</p> <p>1991년 4,617억 원 ↓ 2021년(2회 추경) 1조 1,068억 원</p>	<p>매출액·당기순이익 (30년 누계)</p> <p>매출액 13조 2,031억 원 당기순이익 1조 6,193억 원</p>	
<p>부산시 재정 기여액(배당금) (누계)</p> <p>1,340억 원</p>	<p>사회공헌활동 예산 (10년간)</p> <p>52억 원</p>	<p>경영평가 우수 (‘나’ 등급 이상)</p> <p>23회</p>	

바다가 주요 뉴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사업을 마련하다

- ☑ 2년 연속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경사주거지의 새바람, 셋디산복마을」
- ☑ 5개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2025년까지 총 12,357세대 공급(임대주택 9,570세대, 분양주택 2,787세대)
- ☑ 2020년 행복주택 건립 등 3개 사업 참여 결정 (약 1조 3천억 원 규모)
- ☑ 2021년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3개 사업 참여 결정 (약 6천억 원 규모)



부산의 오랜 기다림! 오시리아관광단지 본격 오픈하다

- ☑ 총 34개 시설 중 32개 시설 투자 유치 확정 (민간투자 유치 100% 완료)
- ☑ 테마파크 내 스카이라인 루지 부산 7월 개장
- ☑ 이 외 빅3 아쿠아 월드, 반얀트리 부산 2023년 개장 예정
- ☑ 생산유발효과 7조 4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4만 6천여 명, 부가가치효과 5조 2천억 원 추산



창립 30주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다

- ☑ 2030 新 경영전략 발표, 「부산도시공사 30년사」 제작 및 발간
-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11,000세대 설날 맞이 떡국 떡 나눔
- ☑ 시민과 함께,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입주민 대상 임대주택 조경공간 시설개선사업, BMC 희망플랫폼 2.0 사업
 - BMC 어린이 놀이터 조성, 도시재생 보이는 라디오 등

2020. 7. ~ 2021. 9.



연택트 시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업체계 강화하다

- ☑ 시민참여혁신단 운영으로 시민체감도 높은 경영혁신 추진
- ☑ 대학생 서포터즈(바다가 YOUNG) 운영을 통한 젊은 세대와의 공감강화
- ☑ 민·관·공 협업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로 사회적 가치 실현
- ☑ 시민과 공사 1:1 온라인 매칭펀드를 통한 공동기부로 나눔의 문화 확산



지역 내 주거복지 전담기관, 부산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다

- ☑ 동부센터 - 공사 1층 열린민원실, 051-810-1360
- ☑ 서부센터 - 서구 구덕로 164 1층, 051-257-9270
- ☑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정보제공, 주택 개보수비·이사비 지원
- ☑ 주거 관련 현황 조사,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일상과 예술의 연결로 도시에 문화를 더하다

- ☑ 부산국제아트센터(부산시민공원 내) 사업자 선정 ('20년 9월, 태영건설 컨소시엄)
- ☑ 부산국제아트센터 공사현장 가림막 아트펜스 제작 「ODYSSEY 2023(Light, Sound, Color)」 ('21년 6월)
- ☑ 아미4 행복주택 공사현장 가림막 아트펜스 제작 「다가오는 것들」 ('20년 11월)

* 가림막 아트펜스 :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시민과 지역 예술가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적 전시공간 마련



코로나19로 움츠린 일상에 힘을 더하다

-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대상 및 공장 임대료 감면 (50%)
-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1억)
- ☑ 2021년 재계약 영구, 공공, 국민임대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8개 지구)
- ☑ 임대주택(영구, 행복, 공공, 국민임대) 입주민 마스크 지원 (누적 48만 3,500개)
- ☑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반려식물 나눔, 기타 피해농가 및 예술인 지원 등

오해는 낮추고 이해는 높이는

직장생활 소통의 기술

'일'이라는 공동목표로 엮여있지만 회사에서도 감정의 영역은 작동하기 마련이다. 옆자리 동료의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 상처받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말실수로 동료의 마음을 돌아서게도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는 일상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근거이자, 내 평판의 밑거름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과 맞는 관계 속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이 현명한 선택일 터.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통팁을 공유한다.

참고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박소연 저)

동료와의 관계를 여는 첫걸음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경제학에서는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골디락스(goldilocks)로 정의한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경기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직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온도도 이와 같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친구처럼 굴거나 싫은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중간 온도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각 직장의 문화와 동료의 특성,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보면 그동안 내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동료는 아니었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마음 온도 체크리스트

- 1** No라는 이야기를 어려워하는가?

YES 개선 필요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거절하기가 어렵다면 혹은 거절의 말을 들었을 때 섭섭함과 분노가 치솟는다면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No OK
- 2** 주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가?

YES OK

No 개선 필요
내 일의 성과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회사에서 고마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온도를 올릴 때다.
- 3** 문제가 생길 때 제대로 사과하는가?

YES OK

No 개선 필요
내 잘못으로 갈등이 생겨 분위기가 무거워졌을 때, 사과를 통해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밀했던 사이도 딱딱 끊어지게 된다.



중요한 건 자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요청하는 것

내 마음 같지 않게 행동하는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상한다. 대부분은 동료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갈등이 본격 시작되는 이유는 사실 그들의 행동에 해석을 덧붙인 나의 시선 때문인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오해겠거니 생각하지만 일단 한번 의식하고 나면 매번 행동을 유심히 살피게 되고,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의 속마음도 확인하고 상황도 타개할 겸 동료를 불러내는 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대개 내가 예상했던 대화흐름과 실제 대화흐름이 정반대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부터 해피엔딩일 수가 없는 해결책이다. 일단 나의 의심이 오해일 가능성이 크고, 설사 맞더라도 상대방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에 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게 상책.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행동뿐이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서운했던 내 마음과 바뀌었으면 하는 상대방의 행동만 담담하게 이야기하자.



★ 예시

나의 감정 말하기
A 대리님, 아침에 인사할 때 저만 빼고 하시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제가 오해한 거죠?

행동요청
저는 아침에 A 대리님 얼굴 보면 기분 좋으니까 저한테도 인사해주세요.

386을 위한 업무 Tip

지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다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정 횟수가 늘고 시간 낭비가 커진다. 처음부터 자세히 전달하면 시간과 평판 모두 지킬 수 있다.

밀레니얼을 위한 업무 Tip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한다

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머릿속에는 어렵듯한 방향 정도만 설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격 착수 전, 한 페이지 정도의 초안을 만들어 상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다. 질문은 가급적 모아서 해야 상사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586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간의 소통

다양한 사고방식이 공존하는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불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상사들의 화법은 말 내용뿐 아니라 전후의 분위기, 의도, 톤까지 파악해야 100%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 가령 상사가 '거래처에서는 세 명이 온다는데 우리 쪽은 나 혼자네'라고 이야기한다면 같이 가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밀레니얼의 세계관은 다르다. '거래처에서는 세 명이 온다는데 우리 쪽에서 나 혼자 가기는 곤란하니 같이 가줄 수 있을까?'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586과 밀레니얼 간의 불협화음을 만든 원인이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이야기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길 바라는 것도 건강한 습관은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지했다면 이제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차례다.

지난호 독자의견

장○동(부산 북구)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살리기 앞장'을 읽고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를 위기와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며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즉 임대료 지원, 마스크 공급, 기부&이익배당금 부산시 지원, 서면시장과 자매결연, 독거노인에 반려식물 및 생필품 전달, 화훼소비 진작, 임대아파트 방역 강화 등 무려 7가지 사업을 펼쳐 지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노고와 정성에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김○미(경북 경산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시장을 참 좋아해서 '서면시장'을 소개한 <부산동네> 코너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대형백화점에 밀려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온나(ONNA) 청년몰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과거의 명성을 넘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을 읽는 내내 응원하게 됐습니다. 외삼촌께서 부산에 계서 자주 발걸음을 하는데 국제시장, 자갈치시장과 함께 이제는 서면시장으로도 나들이 가봐야겠습니다. 특히 서면시장의 역사인 '칼국수'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최○지(대구 달서구)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시작'을 읽고 2020년 3월 말 그린벨트 해제가 심의 통과되면서 첨단산업단지가 본궤도에 진입해 기존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단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됨을 알게 됐습니다. 주거인프라와 교통여건까지 든든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부·울·경은 물론 대구 등 남부권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영(부산 기장군)

<고향 사람의 리스따뜨> 코너 전체가 유익했습니다. 고향사람들이 함께 변화하며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즐거워 보였고, 특히 예술인들이 제안한 '금사락'과 '포톤'도 창작만을 생각하는 그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급 주는 그녀들의 이야기' 주인공 두분 외에도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의 '리스따뜨'를 응원합니다^^

우○형(서울 영등포구)

'내 삶의 출발점, 고향의 새 출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의미도 이제 세월의 흐름 속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변화를 맞아 옛 모습과 발자취를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대한 추억과 신념만은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어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해 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녹산고향동산'은 10여 년 전에 도시 재개발로 옛 모습을 거의 잃어버린 제 고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개발로 사라지는 고향 동네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강서구 주민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첨자(독자엽서&웹진)

이○인(부산시 북구)	우○형(서울 영등포구)	장○동(부산 북구)	이○영(부산 기장군)	전○홍(경기 의정부시)
박○수(부산 해운대구)	최○지(대구 달서구)	이○숙(부산 해운대구)	배○만(경북 포항시)	김○미(경북 경산시)
조○석(부산 금정구)	김○환(서울 서대문구)	김○이(부산 해운대구)	박○영(부산 기장군)	강○찬(부산 해운대구)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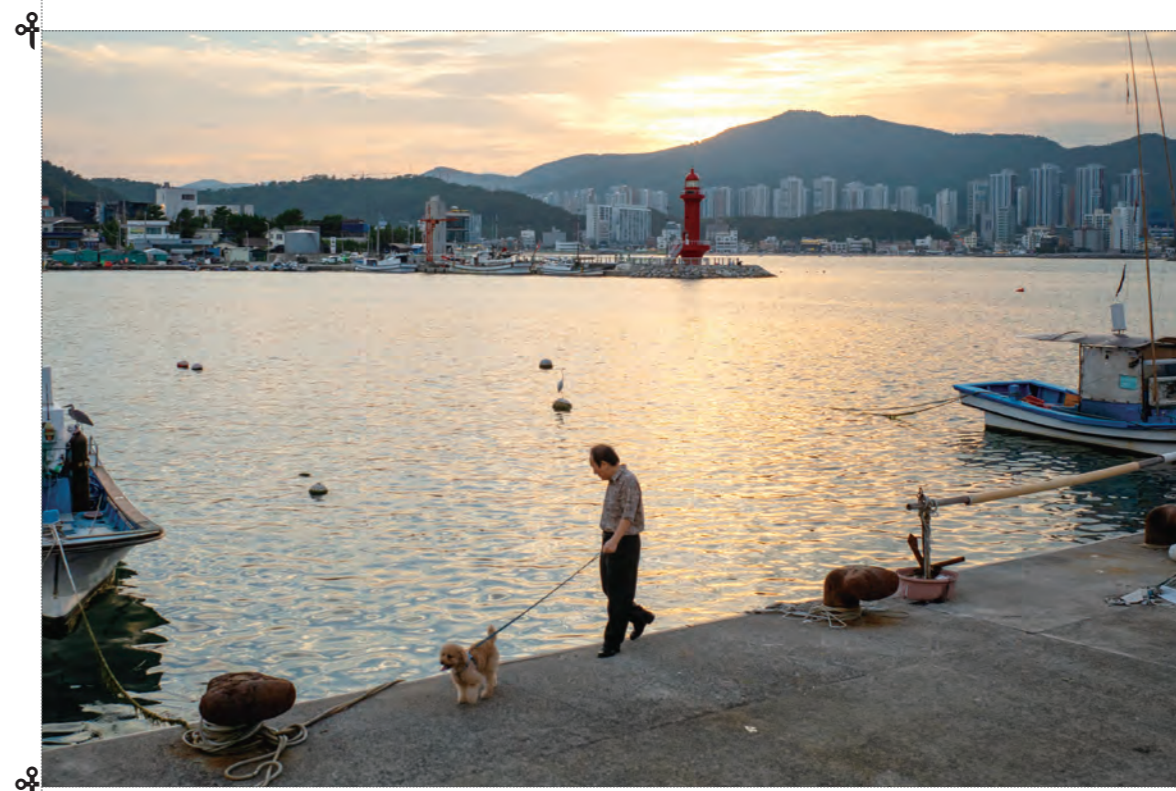
○○신도시는 오리시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계획된 배후 신도시로,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를 살려 계획한 녹색 도시다.

(힌트, 18~23p)

참여방법 엽서 우편 전달 또는 QR코드 스캔해 설문참여



바다가에서 좋았던 기사,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해야 할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퀴즈의 정답도 함께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우편엽서

요금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7.13~계속
부산진우체국 승인
제40186호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수집 및 이용목적: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이름, 주소, 연락처
- 보유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처리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경영지원실
<바다가> 담당자 앞

4 7 2 8 1



POST CARD

To

From

바다가
www.bmc.busan.kr

1.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유익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바다가>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제안사항을 적어주세요.

3.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칭찬 또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4. 독자 퀴즈 정답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 연락처 미기재 시 상품 발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tory of

바다가



부산도시공사의 자음만 모아보니, 부산도시공사가 되었고
사이사이에 있는 서울 기울여보니 '바다가'가 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또 다른 이름, 그리고 부산을 담은 책 '바다가'는
부산의 바다처럼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시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만들고 나누어 가겠습니다.

더 많은 바다가이야기를 만나보세요!

